

# 광주 양동 발산마을 ‘활력 발산’ 마을로 바뀐다

### 현대자동차그룹 마을 환경개선사업 지원

### 담장·울타리 등 단장 컬러아트 프로젝트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이자 1970~80년대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애환과 추억이 깃든 서구 양동 발산마을이 밝고 활력있는 마을로 바뀐다. 마을 담장과 울타리, 골목길 화분들이 새옷을 갈아입고,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산뜻한 마을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현대자동차그룹, 공공미술 프리즘이 주관하는 ‘발산 창조문화마을사업’의 마을 환경개선 사업인 ‘컬러아트 프로젝트’가 10일 발산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발산마을 주민과 기아자동차 임직원, 공공미술 프리즘, 지역청년,

아동센터, 광주시청 및 서구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마을 가꾸기에 나선다.

이들은 발산마을 고유의 무늬를 담은 시트지로 마을의 담장과 울타리를 꾸미고, 골목길 화분마다 색깔을 입혀 산뜻한 마을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주민들의 희망이 담긴 청춘메시지를 주먹가 울타리에 부착해 새로운 마을 이미지를 만들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일환인 ‘아름다운 발산마을 행사’도 열린다.

‘발산창조문화마을사업’은 기존의 재생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마을재생사업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창조혁신센터의 참

여를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내 최초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대차그룹의 광주 창조센터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가까운 이곳 발산마을을 광주 지역의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창조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대표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을잔치, 주민 현장 견학, 주민회의, 교육, 청년위원회 운영, 마을 대청소, 마을자원조사, 출사대회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이번 ‘컬러아트 프로젝트’에 이어 하반기에는 공·폐가를 활용해 청년들의 활동거점인 청춘빌리지를 조성하고 ‘여수 밤바다’와 같은 발산마을 고유의 음원 및 BI(Brand Identity)개발, 발산마을 상품 판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발산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56억원을 들여 상·하수도 정비, 공·폐가 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이야기를 담은 예술작품을 마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6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산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마을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창출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인천 송도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취재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뒤줄 왼쪽 시계방향부터) 이춘희 세종시장·유정복 인천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권선택 대전시장·김관용 경북

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홍준표 경남도지사·남경필 경기도지사·이낙연 전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김기현 울산시장·윤장현 광주시장·박원순 서울시장·서병수 부산시장. <전남도 제공>

## 광주시 무자격 업체에 아파트 사업 승인 ‘물의’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없어

### 사업기간도 연장해줘 논란

광주시가 주택건설사업 자격도 없는 이른바 무자격 업체의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받아줘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무자격 업체가 수년 간 도시 미확보 등 잔적이 없는데도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기간까지 연장해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인 S사는 지난 2012년 북구의 한 자연마을 일대 8만3000여㎡ 부지에 17~23층 규모로 1524가구를 짓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이 업체는 40여 명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뒤 2013년 3월 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당시 이 업체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이 없었는데도 사업 승인 신청을 받아줬고,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을 2년4개월여 동안 알지 못하고 행정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1월까지 수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해당 업체에 지난 4월말까지 토지소유권 확보,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하도록 통보했지

만,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해당 업체에 보완 기간을 5개월 연장해줬다.

논란은 이 과정에서 수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완 기간 연장 불허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가 강행했다는 데 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등 건축행위에서 토지 확보가 최우선 돼야 하는 점에 비해 볼 때 광주시의 주택건설 행정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지난 7월22일 해당 업체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사업 반려 등의 행정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도 석연치 않는 대목이다.

주민들은 “2012년까지 하겠다고던 토지 매수 약속이 아직껏 이행되지 않아 집이 물새고, 허물어져도 제때 고치지 못하고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상황을 직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수 때문”이라며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업체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고, 관계 법령과 보완사항 등을 고려해 신청 민원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으로 보완 기회를 준 것”이라며 “현재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향후 보완 요건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계획 반려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외부 채용인사 연계제 적용”

### 윤장현 시장, 노조에 회신

### 비서실장 등 7명 해당

“시장과 임기를 같이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연계제(繼官制)를 적용하겠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에 회신한 내용이다. 연계제는 정권을 획득한 정당이 관직을 나눠 갖는 것으로,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한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서울본부장 개방형 채용 등 외부인사 채용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윤 시장은 이 회신에서 “외부 채용자 중 시장과 함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연계제를 적용해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임기제와 관련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직위는 임기는 보장하되 종료 시에는 신규 채용이나 내부공직자 활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윤 시장과 임기를 함께 할 공무원원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요원 7명이다. 나머지 민선 6기에 채용된 17명은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일반임기제 형태다.

최근 임명된 인권평화협력관과 5·18기록관장은 개방형 직위다.

노조는 차라리 외부에서 채용을 할 바에는 윤 시장이 후보 당시 공약했던 대로 차라리 연계제를 택하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한다.

광주시도 임기제를 뽑을 경우 업무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공무원 배치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외부에서 뽑는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광주시는 노조가 중단을 요구한 서울본부장(4급)과 대외협력관(5급)은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취소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북 영변 핵시설 플루토늄 생산 의심”

### 북 전문 사이트 ‘38노스’

### 대표적 핵시설이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활발한 활동이 포착돼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9일 밝혔다.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지난달 22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영변 핵단지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포함한 두 곳에서 차량 이동 등 높은 수준의 활동이 새롭게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영변 핵단지의 5MW 원자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대표적 핵시설이다. 38노스는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커다란 트럭이 짐을 싣기 위해 대기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차량들의 활동 정도로 볼 때 이 트럭이 짐을 실은 첫 번째 트럭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이 핵 시설 개보수 또는 오염 장비 교체 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폐연료봉들을 원자로에서 꺼내려는 준비 작업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조례’ 전국 첫 제정

### 전진숙 시의원 발의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으로 규정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담과 신고를 위한 전용 전화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의회 전진숙(북구 4)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소관 상임위를 거쳐 1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다.

9일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청소년 노동인권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증-68156호

##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